

## <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>



### 물놀이 안전사고

익수 사고는 추락이나 낙상과 같은 주요 손상과 비교했을 때 사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사망률은 16.9%로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. 특히 9세 이하의 소아 사고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고령일수록 사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.

####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물놀이 안전수칙

- ✓ 철저히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다.
- ✓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즉시 물에서 나와 몸을 말린다.
- ✓ 사탕이나 껌을 입에 넣은채로 수영하지 않는다.
- ✓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.
- ✓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한다.
- ✓ 안전요원의 시야범위 안에서 물놀이를 한다.
- ✓ 사고 발생지역이나 입수가 금지된 곳에선 절대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.
- ✓ 물살이 강해지거나 수량이 증가하면 즉시 물가에서 벗어난다.

### 햇빛으로 인한 피부질환

#### 일광화상

자외선에 과하게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붉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.

피부가 붉게 변하고 화끈거린다. 냉찜질로 증상을 완화시키고, 물집이 생겼을 경우 억지로 터트리지말고 병원을 방문해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.

#### 햇빛 알레르기(다형광 발진)

햇빛이 노출되는 피부 부위에 가렵거나 물집이 생기는 증상.

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통풍이 잘되는 긴바지, 긴소매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외출한다.